

서울시 건축시설물의 인권영향평가 분석 연구

Research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Seoul City Building Facilities

주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 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nagoya-jang@hanmail.net

<https://doi.org/10.46248/kidrs.2023.4.401>

접수일 2023. 11. 20. / 심사완료일 2023. 11. 30. / 게재확정일 2023. 12. 11. / 게재일 2023. 12. 30.

Abstract

It can be judged that related research, including this study, is showing a relatively expanding trend in the area of universal design, including facility accessibility from the user's perspective, universality of guidance information, as well as guaranteeing participation rights in the increasingly active construction process, but it is still It started from the point that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such as safety management of workers and employees, and labor and rest environments, was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purpose is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is situation and provide basic data so that spatial composition can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from the initial stage in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facilities in the public area. In this study, an on-site evaluation was conducted on 24 facilities in 6 areas, including welfare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park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nd youth facilities, among the assets owned by Seoul City, to determine the right to access, right to travel, right to environment, right to safety, right to rest, Analysis results were presented in a total of 7 areas, including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privac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need to improve the function of architectural space in terms of internal workers, such as workers in overall poor environments.

Keywor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인권영향평가), Architectural Facilities(건축시설물), Analysis of Evaluation Results(평가결과 분석)

요약

본 연구를 포함하여 관련 연구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시설접근성, 안내정보의 보편성은 물론, 점차 활성화되어가는 조성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등 유니버설디자인 영역에서 비교적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아직도 작업자나 종사자의 안전관리, 노동 및 휴게환경 등의 인권측면에서의 고려는 부족하다는 시점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영역의 건축시설물 조성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권측면에서 공간구성이 고려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유자산 중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6개 분야 24개 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하여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 안전권, 휴게권, 정보접근권, 사생활보호권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전반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근무자 등 내부 종사자 측면에서의 건축공간의 기능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이해

- 2-1.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개요
- 2-2. 2021-22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결과

3.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 3-1. 분석 개요
- 3-2. 결과 분석
- 3-3. 부문별 결과 종합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울시는 2013년의제1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과 2017년의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 등이 인권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 후 2019년에 이루어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연구에서는 배리어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및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과의 연계성 등 인권측면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공, 시설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평가방법이 제안되었다.

이후 2020년 수행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 건축시설물 분야 연구의 지표 개발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한데, 첫째,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는 계획 영역 평가도 가능하지만, 도입기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준공된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하였고, 둘째, 건축시설물의 초기 단계의 건설 작업자와 준공 후 종사자의 범주와 및 대상이 광범위해 이에 대해 일정 부분 한정적, 제한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평가 후 서서히 확대해가는 방향 수립이 현실적이라 판단하였으며, 셋째, '인권'은 유니버설디자인과 유사한 영역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다 보편적, 포괄적 개념으로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불편과 차별을 최소화하는 항목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Jang, 2022b, pp.51-52).

이러한 상황은 이용자 측면에서의 시설접근성, 안내 정보의 보편성은 물론, 점차 활성화되어가는 조성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등 유니버설디자인 영역에서 비교적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아직도 작업자나 종사자의 안전관리, 노동 및 휴게환경 등의 인권측면에서의 고려는 부족하다는 것이 실제적인 본 연구의 배경이라 할 수 있으며(Jang, 2022b, p.5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공공영역의 건축시설물 조성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인권측면에서 공간구성이 고려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유자산 1,056개소(2021년 4월 기준) 중 2021년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에 대한 3개 분야의 조사연구 결과 발표(Jang, 2022a, Jang, 2022b, & Choi, 2022)에 이어 2022년 공원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3개 분야의 조사연구 결과 발표(Jang, 2022c)를 바탕으로 하여 공공건축물에서의 인권요소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대표적인 인권영향평가 정책인 서울시의 인권영향평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이해

2-1.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개요

서울시 인권정책은 제1차 및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연구에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국내사례, 서울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구성, 평가지표 검토,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점검표, 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운영방안의 크게 5가지를 연구의 범위 및 내용으로 수행하였고 크게 '건축물 조성과정에서의 인권 고려', '건축물 이용에서의 인권 고려', '건축물 완공 후 관리에서의 인권 고려'라는 3가지 프로세스 중심 분류체계가 핵심방향으로 제시되었다(Jang, 2022c).

2020년의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에서는 다양한 인권분야 중 건축시설물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인권분야를 8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접근하여 점검표의 구성체계를 8개 인권분야에 기초하여 수립하였다(서울특별시, 2021, p.12).(그림 1 참조)



[그림 1] 2020년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 대상 8대 인권분야

2020년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는 8대 인권분야를 코드화하여 'A참여권', 'B접근권', 'C이동권' 등으로 표기하고 각각의 인권분야별 주요 점검항목에 'B4 실내 및 로비공간', 'B5 위생공간 및 서비스시설' 등과 같이 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주요 점검항목별로 세부 점검사항 10개 이내의 평가구조를 갖도록 구조화되었고, 실제 사용을 위한 세부 점검항목을 포함하여 8개 인권분야, 27개 주요 점검항목, 총 129개 세부지표(본

아별 지표)로 구성되었다(Jang, 2022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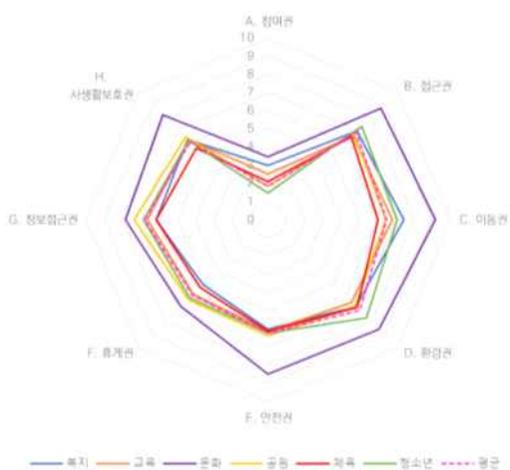
2-2. 2021-22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결과

2021년과 2022년의 6개 부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시설부문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면 환경권이 가장 높게, 참여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참여권’부터 ‘H.사생활보호권’까지 인권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권>접근권/정보접근권>이동권>안전권>사생활보호권>휴게권>참여권의 순으로 나타났고, 문화시설이 8개 인권분야 모두에서 타 시설보다 높은 결과치를 보이고 있으나, 체육시설은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2 참조)

[표 1] 인권분야별/시설부문별 인권영향평가 결과표 종합

구분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평균
A. 참여권	3.00	2.50	3.48	1.85	2.10	1.46	1.81
B. 접근권	6.91	6.56	8.71	6.69	6.45	7.25	6.80
C. 이동권	7.42	6.83	9.17	6.44	6.04	7.06	6.51
D. 환경권	6.79	6.44	8.57	6.75	6.84	7.63	7.07
E. 안전권	6.04	6.17	8.52	6.44	6.13	6.25	6.27
F. 휴게권	5.07	5.81	6.75	6.22	5.28	6.11	5.87
G. 정보접근권	6.15	6.65	7.85	7.36	6.18	6.84	6.80
H. 사생활보호권	6.25	6.19	8.16	6.44	5.56	6.19	6.06
합계	47.63	47.15	61.21	48.19	44.59	48.79	47.19



[그림 2] 인권분야별/부문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그래프

시설부문별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특징을 살펴보면,

복지시설은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편의 측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및 배리어프리 고려된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은 다소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으며,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관람기능을 반영한 사용자 특성에서 문화시설이나 공원시설에서 정보접근권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고, 청소년시설은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이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의 주요 관점인 인권 측면에서 보았을 때, 종사자의 휴게를 포함한 휴게권은 전체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 건축프로그램 및 모델 정립시 종사자 공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3-1. 분석 개요

2021년과 2022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건축시설물 분야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종합하고자 한다. 결과 종합에 있어서는 첫째, 분석대상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진행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6개 부문 24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8대 인권분야 중 유의미한 데이터로 판정하기 어려운 참여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8대 인권분야별 비교분석에 있어서는 24개소의 시설에서 참여권을 제외한 7개 분야의 최저점이 4.31점(목동다목적체육관/휴게권)인 것에 반해, 참여권은 최대 3.92점(청계천박물관), 최저 0.92점(시립성동청소년센터)으로 모든 시설에서 최저점보다 낮게 나타나 유효한 데이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물론 참여권은 설계단계부터 필요한 요소지만 현실적으로는 최근의 공공건축에 대한 현상공모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소 활성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되, 본 분석대상은 그러한 시점 이전에 개관된 시설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비교분석 등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향후 신축개축 리모델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프로세스의 정립은 장래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전제로 두고자 한다. 셋째, 평가지표 점수에 AHP 분석도구를 통해 얻은 가중치 값을 적용하여 얻은 값으로 평가의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각 분야별로 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인권분야에 있어서 중요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가중치를 도출하여 평가점수를 재산출하였고, 7개 인권분야에 대해 부문별 중요도에 대한 의사결정요소들

의 상대적 중요도 및 선호도를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최상의 대안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3-2 결과 분석

3-2-1. 6개 부문 24개소 시설 대상 평가 결과

7대 인권분야를 기준으로 평균점은 문화시설(8.25)>청소년시설(6.76)>공원시설(6.62)>교육시설(6.38)>복지시설(6.37)>체육시설(6.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7대 인권분야 기준으로 6개 시설부문의 평균은 환경권(7.17)>이동권(7.16)>접근권(7.10)>정보접근권(6.84)>안전권(6.59)>사생활보호권(6.47)>휴게권(5.87)으로, 전체평균은 6.74로 나타났다. 단, 각 부문별로는 평균점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7대 인권분야 기준 부문별/시설별 인권영향평가 결과표는 [표 2]와 같다.

3-2-2. AHP 분석을 위한 가중치 산정 및 평가점수 재산출

각 조사자(총 6명)가 부문별(6개 부문)/인권분야별(7개 분야)로 우선순위(1~7순위)를 책정하고 부문별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에 대해 4순위를 1.00점으로 하여 상하 순위 편차 0.01점씩 차등 적용하여 1순위:1.03점, 2순위:1.02점, 3순위:1.01점, 4순위:1.00점, 5순위:0.99점, 6순위:0.98점, 7순위:0.97점의 조사자별 환산점수의 합을 평균점으로 도출한 값을 가중치로 산정한다.

이는 부문별/시설별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달리 각 부문별로 시설 특성 및 프로그램의 종류, 사용자 및 근무자 특성, 시설의 규모 및 배치 등 기능에 따라 중요시되는 인권분야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각 분

[표 2] 시설부문별/시설별 인권영향평가 결과표-7대 인권분야 기준

구 분	시설명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	안전권	휴게권	정보 접근권	사생활 보호권	평균
복지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	6.95	7.67	8.13	6.75	4.88	6.90	6.38	6.81
	강서노인종합복지관	7.50	7.75	5.88	6.25	5.25	6.50	6.38	6.50
	관악노인종합복지관	6.55	7.33	7.00	6.58	5.00	5.95	6.25	6.38
	광진노인종합복지관	6.65	6.92	6.13	4.58	5.13	5.25	6.00	5.81
	복지시설 평균	6.91	7.42	6.78	6.04	5.06	6.15	6.25	6.37
교육 시설	용산도서관	7.00	7.08	7.75	6.50	6.81	6.75	6.88	6.97
	고척도서관	6.95	7.42	7.13	7.00	5.38	6.50	5.88	6.61
	서울자유시민대학본부	5.40	7.08	5.75	5.67	5.25	7.35	6.63	6.16
	동부기술교육원	6.90	5.75	5.13	5.50	5.81	6.00	5.38	5.78
	교육시설 평균	6.56	6.83	6.44	6.17	5.81	6.65	6.19	6.38
문화 시설	북서울미술관	8.90	9.33	9.25	8.83	8.06	8.50	9.13	8.86
	서울여성플라자	9.05	9.08	8.88	8.58	7.75	8.00	9.00	8.62
	한성백제박물관	9.00	9.08	8.75	8.42	6.56	8.20	8.38	8.34
	청계천박물관	7.90	9.17	7.38	8.25	4.63	6.70	6.13	7.17
	문화시설 평균	8.71	9.17	8.56	8.52	6.75	7.85	8.16	8.25
공원 시설	어린이대공원	7.50	6.67	7.13	7.58	6.94	7.54	7.75	7.30
	서울창포원	6.50	7.58	6.38	6.17	6.13	6.92	5.75	6.49
	월드컵공원	7.15	6.25	6.50	6.42	5.88	6.71	6.50	6.49
	선유도공원	5.60	5.25	7.00	5.58	5.94	8.29	5.75	6.20
	공원시설 평균	6.69	6.44	6.75	6.44	6.22	7.36	6.44	6.62
체육 시설	창동문화체육센터	7.45	6.58	8.50	7.17	6.56	6.17	5.63	6.87
	서울곰두리체육센터	7.05	7.58	7.25	6.33	5.31	5.63	6.25	6.49
	장충체육관	5.80	5.25	5.75	6.00	4.94	8.46	6.50	6.10
	묵동다목적체육관	5.50	4.75	5.88	5.00	4.31	4.46	3.88	4.83
	체육시설 평균	6.45	6.04	6.84	6.13	5.28	6.18	5.56	6.07
청소년 시설	시립성동청소년센터	8.00	7.33	7.50	6.25	6.75	7.33	6.63	7.11
	시립화곡청소년센터	7.65	7.92	7.38	6.83	6.06	6.75	6.50	7.01
	시립창동청소년센터	7.35	6.83	8.00	6.83	6.44	6.63	6.00	6.87
	시립금천청소년센터	6.00	6.17	7.63	5.08	5.19	6.67	5.63	6.05
	청소년시설 평균	7.25	7.06	7.63	6.25	6.11	6.84	6.19	6.76
전체 평균	7.10	7.16	7.17	6.59	5.87	6.84	6.47	6.74	
인권분야별 순위	3	2	1	5	7	4	6		

아별 가중치를 산정, 대입하고자 한 것이다.

6명의 조사자에 의한 가중치 도출 결과, 인권분야에 대한 중요도는, ① 복지시설 : 접근권>이동권>안전권>휴게권>사생활보호권>환경권>정보접근권, ② 교육시설 : 안전권>환경권>이동권>접근권>휴게권>정보접근권>사생활보호권, ③ 문화시설 : 접근권>정보접근권>이동권>환경권>안전권>휴게권>사생활보호권, ④ 공원시설 : 접근권>이동권>안전권>정보접근권>휴게권>환경권>사생활보호권, ⑤ 체육시설 : 이동권>접근권>안전권>정보접근

권>사생활보호권>휴게권>환경권, ⑥ 청소년시설 : 안전권>환경권/접근권>이동권>정보접근권>사생활보호권>휴게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접근권>이동권>안전권>환경권>정보접근권>휴게권>사생활보호권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를 바탕으로 가중치에 의한 결과를 재산정한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7대 인권분야 기준으로 평균점으로는 문화시설(8.25)>청소년시설(6.76)>공원시설(6.62)>복지시설(6.380)>교육시설(6.379)>체육시설(6.10)의 순으로 나

[표 3] 부문별/시설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산정표-7대 인권분야 기준

구 분	시설명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	안전권	휴게권	정보 접근권	사생활 보호권	평균	부문별 순위
복지 시설	가중치	1.022	1.020	0.990	1.012	0.993	0.970	0.993		
	서울노인복지센터	7.10	7.82	8.05	6.83	4.85	6.69	6.34	6.81	①
	강서노인종합복지관	7.67	7.91	5.82	6.33	5.21	6.31	6.34	6.51	②
	관악노인종합복지관	6.69	7.48	6.93	6.66	4.97	5.77	6.21	6.39	③
	광진노인종합복지관	6.80	7.06	6.07	4.63	5.09	5.09	5.96	5.81	④
	복지시설 평균	7.06	7.57	6.72	6.11	5.03	5.97	6.21	6.38	4
교육 시설	가중치	1.000	1.008	1.013	1.028	0.992	0.982	0.977		
	용산도서관	7.00	7.14	7.85	6.68	6.76	6.63	6.72	6.97	①
	고척도서관	6.95	7.48	7.22	7.20	5.34	6.38	5.74	6.62	②
	서울자유시민대학본부	5.40	7.14	5.82	5.83	5.21	7.22	6.48	6.16	③
	동부기술교육원	6.90	5.80	5.20	5.65	5.76	5.89	5.26	5.78	④
	교육시설 평균	6.56	6.89	6.52	6.34	5.77	6.53	6.05	6.38	5
문화 시설	가중치	1.027	1.012	0.995	0.995	0.985	1.013	0.973		
	북서울미술관	9.14	9.44	9.20	8.79	7.94	8.61	8.88	8.86	①
	서울여성플라자	9.29	9.19	8.84	8.54	7.63	8.10	8.76	8.62	②
	한성백제박물관	9.24	9.19	8.71	8.38	6.46	8.31	8.15	8.35	③
	청계천박물관	8.11	9.28	7.34	8.21	4.56	6.79	5.96	7.18	④
	문화시설 평균	8.95	9.27	8.52	8.48	6.65	7.95	7.94	8.25	1
공원 시설	가중치	1.025	1.012	0.982	1.012	0.995	0.998	0.977		
	어린이대공원	7.69	6.75	7.00	7.67	6.91	7.52	7.57	7.30	①
	월드컵공원	6.66	7.67	6.27	6.24	6.10	6.91	5.62	6.50	②
	서울창포원	7.33	6.33	6.38	6.50	5.85	6.70	6.35	6.49	③
	선유도공원	5.74	5.31	6.87	5.65	5.91	8.27	5.62	6.20	④
	공원시설 평균	6.85	6.51	6.63	6.51	6.19	7.35	6.29	6.62	3
체육 시설	가중치	1.020	1.048	0.973	1.020	0.982	1.000	0.987		
	창동문화체육센터	7.60	6.90	8.27	7.31	6.44	6.17	5.56	6.89	①
	서울곰두리체육센터	7.19	7.94	7.05	6.46	5.21	5.63	6.17	6.52	②
	장충체육관	5.92	5.50	5.59	6.12	4.85	8.46	6.42	6.12	③
	목동다목적체육관	5.61	4.98	5.72	5.10	4.23	4.46	3.83	4.85	④
	체육시설 평균	6.58	6.33	6.66	6.25	5.18	6.18	5.49	6.10	6
청소년 시설	가중치	1.008	1.000	1.008	1.028	0.978	0.997	0.980		
	시립성동청소년센터	8.06	7.33	7.56	6.43	6.60	7.31	6.50	7.11	①
	시립화곡청소년센터	7.71	7.92	7.44	7.02	5.93	6.73	6.37	7.02	②
	시립창동청소년센터	7.41	6.83	8.06	7.02	6.30	6.61	5.88	6.87	③
	시립금천청소년센터	6.05	6.17	7.69	5.22	5.08	6.65	5.52	6.05	④
	청소년시설 평균	7.31	7.06	7.69	6.42	5.98	6.82	6.07	6.76	2
전체 평균	7.22	7.27	7.12	6.69	5.80	6.80	6.34	6.75		
인권분야별 순위	2	1	3	5	7	4	6			

타나, 미세한 차이로 복지시설과 교육시설의 순위가 바뀐다. 가중치를 대입하기 전과 비교하면 복지시설은 +0.01, 체육시설은 +0.03 상승하였고, 교육시설은 -0.001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 가중치 대입 전후의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가중치 대입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부문별로는 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인권분야별로는 순위가 변동이 발생하였다.

인권분야별 순위에서는 가중치 대입 전의 상위 3개 분야의 순위 ‘환경권>이동권>접근권’이었던 것이 대입

후에는 ‘이동권>접근권>환경권’으로 변동되었다. 이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조사자들이 각 시설별로 인권분야의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를 가중치에 반영하였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률적인 정량평가 방식보다는 시설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가중치의 비율(편차)을 상향하였을 경우에는 또 다른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인권분야별 평균 대비 취득점을 살펴보면 시설부문에 각각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그림 3 ~ 그림 8 참조)



[그림 3] 복지시설 인권분야별 평균대비 평가점



[그림 4] 교육시설 인권분야별 평균대비 평가점



[그림 5] 문화시설 인권분야별 평균대비 평가점



[그림 6] 공원시설 인권분야별 평균대비 평가점



[그림 7] 체육시설 인권분야별 평균대비 평가점



[그림 8] 청소년시설 인권분야별 평균대비 평가점

6개 부문별로 보면, 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이 대체로 평균과의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간에 큰 차이가 없는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의 경우에도 시설간에 두드러지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문화시설은 특정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시설과 평균을 크게 밑도는 시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시설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대치와 최소치 점수의 편차를 분석하면 동 분야의 인권분야별 상태, 인권분야에 대한 부문(시설군)의 상

태를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편차의 크기는 작을수록 시설간의 차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클수록 시설간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부문(시설군) 내에서 편차가 문화시설의 이동권에서 가장 작은 0.25로 나타났고, 체육시설의 정보접근권이 가장 큰 4.00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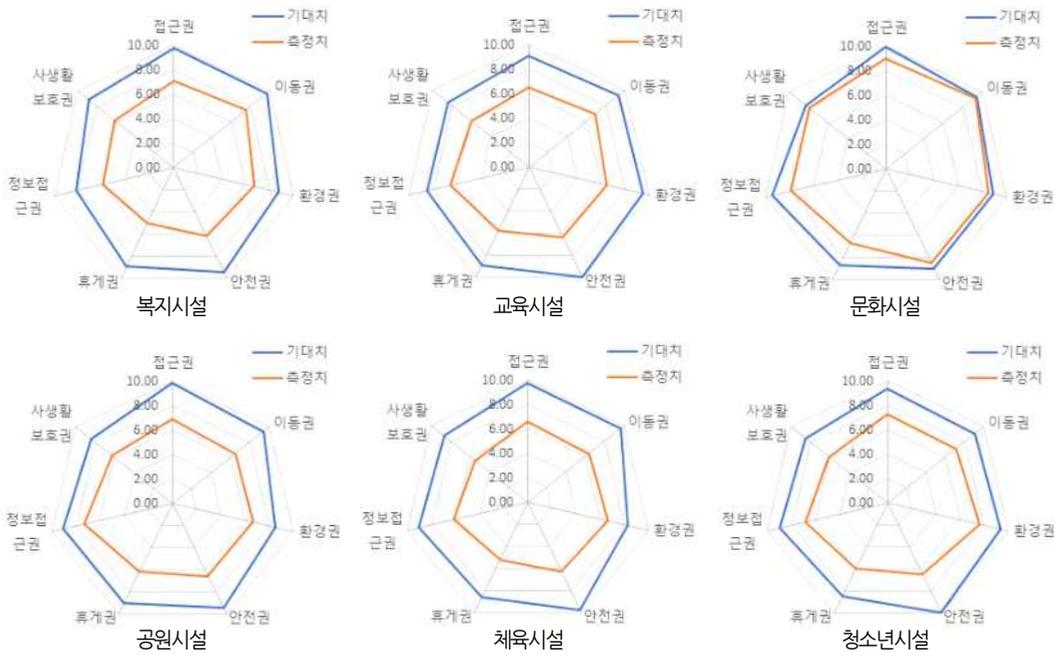
분야별 현황에서는 부문별로 인권분야의 적용 상태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휴게권이 복지시설에서는 시설별로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문화시설에서는 시설별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표 4] 최대/최소 대비 편차 분석표

구분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	안전권	휴게권	정보접근권	사생활보호권	최소 인권분야	최대 인권분야
복지시설	0.98	0.85	2.23	2.20	0.36	1.60	0.38	휴게권	환경권
교육시설	1.60	1.68	2.65	1.55	1.55	1.33	1.46	정보접근권	환경권
문화시설	1.18	0.25	1.86	0.58	3.38	1.82	2.92	이동권	휴게권
공원시설	1.95	2.36	0.73	2.02	1.06	1.57	1.95	환경권	이동권
체육시설	1.99	2.96	2.68	2.21	2.21	4.00	2.59	접근권	정보접근권
청소년시설	2.01	1.75	0.62	1.80	1.52	0.70	0.98	환경권	접근권
최소 부문	복지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최대 부문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표 5] 기대치/측정치 현황표

구분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	안전권	휴게권	정보접근권	사생활보호권
복지시설	기대치	9.75	9.70	8.80	9.45	8.90	8.20
	측정치	7.06	7.57	6.72	6.11	5.03	5.97
교육시설	기대치	9.10	9.35	9.50	9.95	8.85	8.55
	측정치	6.56	6.89	6.52	6.34	5.77	6.53
문화시설	기대치	9.90	9.45	8.95	8.95	8.65	9.50
	측정치	8.95	9.27	8.52	8.48	6.65	7.95
공원시설	기대치	9.85	9.45	8.55	9.45	8.95	9.05
	측정치	6.85	6.51	6.63	6.51	6.19	7.35
체육시설	기대치	9.70	9.65	8.30	9.70	8.55	9.10
	측정치	6.58	6.33	6.66	6.25	5.18	6.18
청소년시설	기대치	9.35	9.10	9.35	9.95	8.45	9.00
	측정치	7.31	7.06	7.69	6.42	5.98	6.07



[그림 9] 기대치/측정치 비교

알 수 있다. 환경권에 있어서는 공원시설이나 청소년시설에서는 거의 일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복지시설이나 교육시설에서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권분야에 대한 부문(시설군)의 현황을 보면, 복지시설이 접근권, 휴게권, 사생활보호권에서, 문화시설이

이동권, 안전권에서, 청소년시설이 환경권, 정보접근권에서 최소 편차를 보여 부문이 요구하는 시설특성과 관련한 부분은 시설간에 큰 차이 없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체육시설은 이동권, 환경권, 안전권, 정보접근권에서 큰 편차를 보여 시설의 규모와 활동 종목 수에 따라 차이가 클 것이라는 예상대로 시

설간에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타 인권분야에서 최소 편차를 보였던 문화시설이 휴게권과 사생활보호권에서, 청소년시설이 접근권에서 시설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각 부문별로 인권분야별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통해 건립 또는 리모델링 등의 단계에서 적절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조사자별 우선순위를 기대치 점수로 환산하여 각 부문별 평균점(측정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5], [그림 9]와 같다. 전체 인권분야에서 기대치가 측정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기대치와 측정치의 편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상태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시설은 편차가 2.08~3.87로, 휴게권(3.87), 안전권(3.34)에서 특히 미흡하고, 교육시설은 편차가 2.02~3.61로, 안전권(3.61), 휴게권(3.08)에서 특히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시설은 편차가 0.18~2.00으로, 이동권(0.18), 사생활보호권(0.36)에서 등 전반적으로 기대치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원시설은 편차가 1.70~3.00으로, 접근권(3.00), 이동권(2.94), 안전권(2.94), 휴게권(2.76)에서 미흡하고, 청소년시설은 편차가 1.66~3.53으로, 안전권(3.53)에서는 특히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체육시설은 편차가 1.64~3.45로, 환경권(1.64)를 제외한 전 인권분야에서 2.92 이상의 미흡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상기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문별로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중요도를 반영한 정량적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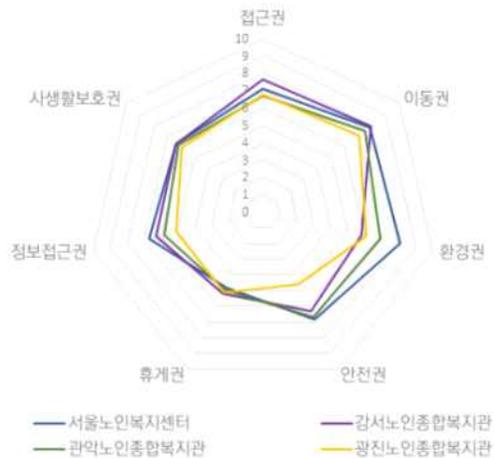
3-3 부문별 결과 종합

여기에서는 부문별 측정치가 가장 높은 시설과 가장 낮은 시설 대비 조사자 기대치를 중심으로 부문별 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3-3-1. 복지시설

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평가치가 낮은 상황에서 환경권, 안전권을 제외한 5개 인권분야에서는 시설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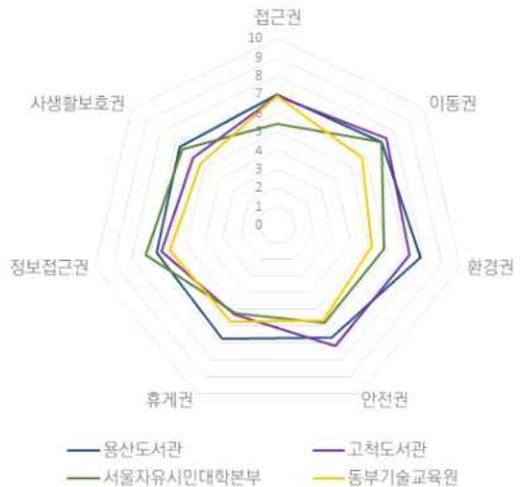
다만, 휴게권에서 시설간에는 거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대점을 보인 시설조차도 기대치와는 큰 차이를 보여 전반적으로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휴게권을 보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생활보호권에 있어서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림 10] 부문별/시설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 복지시설

3-3-2.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각 시설별로 인권분야에 따라 적용 수준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보여 인권분야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파악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그림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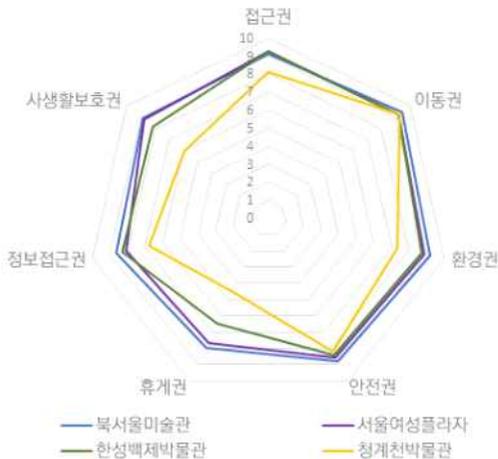
[그림 12] 부문별/시설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 교육시설

시설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평가치에서는 최소점이 5점대에 형성되어 있어 타 부문에 비해서는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대점의 경우에도 6~7 점대를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기대치와의 비교에서도 최대치와 최소치 모두 대체로 일정한 간격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시설의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분야와

관련한 기준을 일층 높여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그림 13 참조) 이는 보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3-3-3. 문화시설

문화시설은 특정시설에서 평가치가 저조한 상태를 보이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진다.(그림 14 참조) 청계천박물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시설에서 대부분의 인권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보이며, 타 부문에 비해 평가치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인권반영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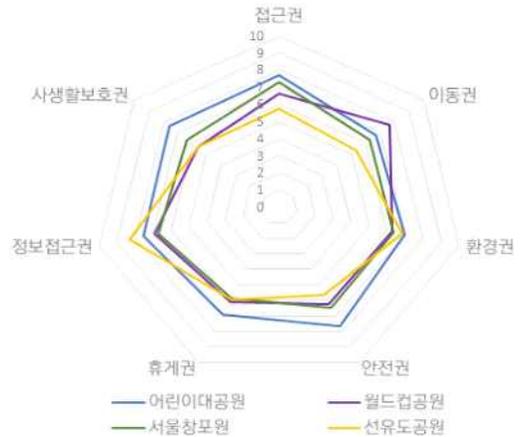
[그림 14] 부문별/시설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 문화시설

기대치와의 비교에서도 이동권, 안전권에서는 최대치와 최소치 모두 기대치에 매우 근접해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환경권, 사생활보호권의 최대치는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다.(그림 15 참조)

문화시설은 배리어프리인증에 따른 영향이 작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배리어프리인증지표와 연동된 평가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최소점이 매우 낮은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의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분야와 관련한 시설 투자와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3-3-4. 공원시설

공원시설은 특정시설을 제외하고는 인권분야에 따라 평가치의 수준이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보여 인권분야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파악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그림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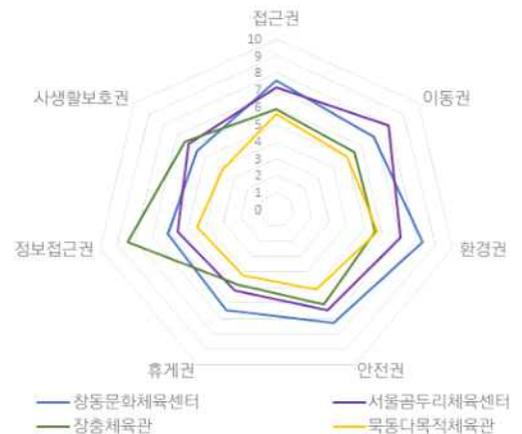


[그림 16] 부문별/시설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 공원시설

시설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평가치에 있어서는 최소점이 5~6점대에 형성되어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대점의 경우에도 6~8점대를 형성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기대치와의 차이 비교에서는 대체로 일정한 간격을 보이고 있으나, 공원시설에서 특히 요구되는 접근권, 이동권 등 간격이 크게 나타난 인권분야에 있어서는 관련한 기준을 높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그림 17 참조)

3-3-5. 체육시설

체육시설은 시설간의 편차가 크고 시설에 있어서도 인권분야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심해 일정한 패턴을 파악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장충체육관의 경우는 정보접근권과 사생활보호권에서 부문의 최고점을 보이고 있으나 그 외의 인권분야에서는 평균점 이하를 보여주고 있어 시설 내의 인권분야별 차이가 가장 심한 시설로 나타난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부문별/시설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 체육시설



[그림 11] 부문별 인권영향평가 최대치/최소치 비교 - 복지시설



[그림 13] 부문별 인권영향평가 최대치/최소치 비교 - 교육시설



[그림 15] 부문별 인권영향평가 최대치/최소치 비교 - 문화시설



[그림 17] 부문별 인권영향평가 최대치/최소치 비교 - 공원시설



[그림 19] 부문별 인권영향평가 최대치/최소치 비교 - 체육시설



[그림 21] 부문별 인권영향평가 최대치/최소치 비교 - 청소년시설

환경권, 정보접근권에서 최대치의 시설은 기대치에 매우 근접해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최소점을 보면 인권분야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타 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최소점이 기대치와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이다. 따라서 체육시설에서 특히 요구되는 접근권, 이동권, 안전권 등에 대해서는 관련한 기준을 높여서 조정하고, 리모델링 등의 상황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그림 19 참조)

3-3-6.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은 특정시설에서 평가치가 크게 밀도는 인권분야를 포함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진다.(그림 20 참조)

환경권과 정보접근권에 있어서는 시설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최소점 시설의 경우도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안전권에 있어서는 기대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약자계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21 참조)



[그림 20] 부문별/시설별 인권영향평가 결과 - 청소년시설

4. 결론

본 연구는 공공 건축시설물의 건립 초기 단계에서

부터 인권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기준점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연구되었다. 이에 서울시 소유자산 중 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6개 분야 24개 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하여 접근권, 이동권, 환경권, 안전권, 휴게권, 정보접근권, 사생활보호권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7대 인권분야 기준으로 평균점을 계산하면 문화시설(8.25)>청소년시설(6.76)>공원시설(6.62)>복지시설(6.380)>교육시설(6.379)>체육시설(6.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분야별로 최대치와 최소치 점수의 편차를 분석하여 동분야의 인권분야별 상태, 인권분야에 대한 부문(시설군)의 상태가 각각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인권 측면으로 본 공공건축 시설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능보강사업 등의 예산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과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므로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밀리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는 종사자의 쾌적한 사무환경과 휴게시설 조성 등을 위해 인권 차원에서 공간계획의 균형감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법적 의무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방문자의 이동과 더불어 시설특성에 따른 서적, 자재 운반 및 이동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종사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설비 등은 인권 차원에서 개선 검토가 필요하며, 종사자를 위한 힐링 공간과 심리상담 등 인권 차원의 공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미화원 등 환경직 처우 개선을 위한 휴게실 마련 등은 꾸준히 시도되고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금의 수준보다 향상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상시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인권 차원에서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측면에서의 건축의 현실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속적 연구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근무자 등 내부 종사자 측면에서의 건축공간의 기능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1. 김규리, 장영호, 김주연, 공공문화시설에서의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1.2, Vol.16, No.1, 70호
2. 김효진, 장영호, 김주연, 원주시 근린공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2.4, Vol.17, No.3, 80호
3. 박선희, 장영호, 이재규, 복합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연구 : 서울 암사유격지 시설군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0.3, Vol.15, No.2, 63호
4. 장영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분석기준 및 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1.2, Vol.16, No.1, 70호
5. 장영호,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인권영향평가 연구, 한국공공디자인학회논문집, 2022a, Vol.2, No.1, 5호
6. 장영호, 서울시 문화시설 인권영향평가 연구, 한국공공디자인학회논문집, 2022b, Vol.2, No.2, 4호
7. 장영호,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요소 적용 실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공원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2.12, Vol.17, No.8, 85호
8. 최성호, 서울시 교육시설 인권영향평가 연구, 한국공공디자인학회논문집, 2022.6, Vol.2, No.1, 5호
9. 하정민, 장영호, 김주연, 서울시 경로당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2.12, Vol.17, No.8, 85호
10. 하정민, 장영호, 김주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2023.4, Vol.18, No.3, 88호
11. 서울특별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연구, 2019